

[화제의 인물]

“ 회사와 근로자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박 용 순 / 와이케이스틸(주) 보건관리자

2009년 7월 8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맞춰 한국산업간호협회 주관으로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산업간호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와이케이스틸(주) 박용순 보건관리자가 직장내 절주프로그램 적용'을 사례를 발표하여 당당히 대상인 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박용순 보건관리자는 대상을 수상하는 순간 절주사업을 추진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뇌리에 스쳐 흐르는 눈물을 참느라 애썼다고 한다. 2008년 1년간 길고 힘들었던 절주사업이었지만 노력한 만큼 사업장내에 건강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히고, 음주로 인한 결근율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간기능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사업주의 건강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였다.

과도한 음주는 간이나 췌장, 위 등 소화기질환

과, 비만·당뇨·고혈압·심장질환·각종 압 등 신체에 직접적인 건강문제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불면·우울증·자살 등 심리적인 건강문제와, 결근·업무집중 저하·사고·이혼·불안정한 가정문제·범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며,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더욱이 직장인의 음주는 비음주자에 비하여 결근율을 3배 이상 상승시키고, 업무효율성이 30% 이상 감소하며,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게 된다. 또한 작업장에서는 소량의 음주라 할지라도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을 떨어



트리고 과도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작업 중 사고 위험을 증가 시키게 되며, 실제로 사업장 산재사고의 원인이 47%가 음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음주의 폐해로부터 회사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제 음주자를 찾아내어 전문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선도하며 최종적으로는 재할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사업장 음주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증진사업은 사업주의 인식과 강력한 의지, 보건관리자의 철저한 계획과 추진능력, 그리고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잘 맞아 성공할 수 있다. 와이케이스틸(주)은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철강전문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업장으로, 최창대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 신바람 나는 회사,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회사'라는 경영방침 아래 직원건강이 곧 회사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제강과 압연공정에서 작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고온과 소음, 분진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인식한 박용순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건강진단도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시하여,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유소견자는 물론 요관찰자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뇌심혈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지역보건소와 협력하여 꾸준히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2008년부터는 부산지방노동청, 보건소, 병원, 알코올 상담센터 등 지역사회자원과 손잡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절주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용순 보건관리자는 교대근무나 생산현장의 상황 등으로 근로자들의 참석이 저조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로부터 “한번 찍히면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애교적인 투정을 들을 만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음주횟수와 음주량이 줄고, 전직원의 간기능수치가 현저하게 좋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간호사는 지속적인 근로자 건강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항상 근로자에게 가까이 있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며 산업간호사의 자세를 강조하는 박용순 보건관리자야말로 700여 근로자의 건강지킴이로서 14년차 베테랑 보건관리자답게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10여년전 제강공장에서 구토를 하며 쓰러져 있는 근로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에 후송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뇌경색 치료를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정년퇴직을 맞으며 기꺼이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받았을 때 보건

관리자로서 가장 보람 있었다고 한다. '내일을 후회하지 않는 오늘이 되자'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박용순 보건관리자는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산업전문간호사로서 보건관리 영역에 역량을 키워 근로자 건강증진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을 털어놓았다.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와 변화에 힘을 쏟고 있는 시점이니 산업간호사는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근로자 건강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꼭 필요로 하는 산업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꾸준한 자기개발도 병행하여 한다고 박용순간호사는 산업간호사들에게 힘주어 조언한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산업간호에 최선을 다하는 산업간호사에게 파이팅을 외치는 박용순 보건관리자에게 영원히 애정이 넘치는 보건관리자로 있기를 기대하며 힘찬 박수를 보낸다.

